금주의 법구–〈불유교경〉
권력자와 결탁해 서민을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만족할 줄 알라.
지나친 부를 탐하지 말아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4월 26일)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호국영령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민족과 국가를 수호한 애국애족 열사들의 애국심이 국토를 물들인다. 여기엔 현장에서 군불교 발전과 포교에 진력하다 산화한 군승도 빠질 수 없다. 사진은 현충일을 앞둔 6월 1일 해군본부 일공 이경한 법사를 비롯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승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군승 묘역을 참배하고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세계 청소년 불자 결집…계층포교 활성화 '기대'

대한불교청년회, 8월 말 3박4일 'IBYE캠프' 개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0월 태국서 열린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 총회에서 이웃나라와 각축전을 벌여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Intercultural Buddhist Youth Exchange, 이하 IBYE)' 국내 유치에 성공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가 올 하반기 다양한 사업들로 계층포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제행사 유치 · 국내행사 확대

대불청의 올해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2023 IBYE는 WFBY 소속 18개국 38개 단체 청소년 및 지도자,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전 세계 청소년불자들의 교류의 장이다. 올해 대회 슬로건은 생명살림.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속에서 찾는 우리들의 미래' 라는 부제 아래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4일간 불국사와 고운사 등 경북 일대에서 펼쳐진다.

IBYE의 국내 유치는 지난 2018년 3월 제주불교청년회가 제주4.3사건을 주제로 개최한 데 이어 약 5년 만이다. 지구 · 지회 단위가 아닌 대불청 차원에서의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첫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불국사 마당에서 펼쳐지는 환영의 밤 콘서트로 막을 올린다. 콘서트 무대에는 젊은 불자 연예인과 풍물패 · 댄스 · 찬불가 등 종립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회를 소개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율동처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율동을 사전에 안내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화합하는 대동한마당을 연출할 계획이다.

2일차부터는 본격적인 한국불교문화 체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우선 현재 경주 열암곡 마애불을 일으켜 세우는 조계종 핵심사업 '천년을 세우다' 의 의미를 전해 1700년 한국불교 역사를 세계에 알린다. 이어 '생명살림' 이라는 대회 주제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금지, EM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등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 사찰의 활동을 소개하고, 해외 불교의 사례도 공유한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생명살림을 위해서는 현재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했다"며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불자들이 앞장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한다는 결의문 발표나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일차에는 주 무대를 예천국제양궁장으로 옮긴다. 우리나라 올림픽 효자 종목이기도 한 양궁은 많은 선수들이 명상을 병행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20~30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청소년불자들이 만나 양궁을 체험하고, 함께 명상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상월결사 108원력문을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등으로 통역해 108배를 올리며 불교 대중화를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을 느낄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저녁에는 각국 청소년들이 나라별 장기자랑을 펼치며 대단원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대불청은 IBYE 외에도 오는 6월 1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제43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만해백일장 1회 대상 수상자인 윤재웅 총장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 올해는 대불청과 동국대의 공동 주최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중강당 등 행사장소를 지원하고, 동국대 이사장상과 총장상 등을 후원키로 했다. 또 '문학인의 산실' 이라 평가받는 동국대에서 현직 교수 3명이 심사위원으로 힘을 보태고, 재학생들은 참가자를 위한 행사 안내 등 봉사에 나선다.

18개국 청소년 등 300명 참가
불국사 · 고운사 주요 무대 활용
오는 17일 동국대서 만해백일장
모바일 회원증 개발도 진행 중

백일장이 끝난 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문학계의 거장 염무웅 영남대 명예교수 초청 강연을 비롯해 염승숙 소설가, 송석주 영화평론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음악공연 등이 이어진다.

재정자립 · 회원 혜택 개선도

대불청은 국제 ·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조직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에 마련한 만해평화센터가 매입 이후 3년이 지나 올 연말부터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무인카페나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고민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수익금 일부를 대불청이 받는 방향도 거론되는데 이사회 결의가 우선이다.

대불청 정회원과 후원회원인 준회원의 혜택 확대를 위한 모바일 회원증 도입도 진행되고 있다.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대불청이 그동안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대불청은 앞서 호텔, 상조, 차 및 다구, 병원, 사찰음식점, 구강제품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정화 회장은 "첫 임기를 마치고 재임해 소임을 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적어도 차기 회장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반을 닦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한국불교의 청년 계층이 보다 탄탄해지도록 자부심을 느끼게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분사 마친 대자유인 되라"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결제 법어
전국 선원 6월 3일부터 하안거 정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오는 6월 3일 계묘년 하안거 결제를 앞두고 수좌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성파 대종사는 하안거 결제 법어에서 "도(道)를 배우는 사람이 참됨(識眞)을 알지 못하고, 다만 본래의 알음알이(識神)를 잘못 알기 때문이다. 끝없는 옛적부터 생사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몸(本來身)이라 하도다", "마음자리를 수시로 말했고, 보리 또한 그럴 뿐이네, 사(事)와 이(理)에 모두 걸림이 없으면, 나는 자리가 곧 나지 않는 자리일세"라는 두 편의 게송을 통해 안거 수행에 정진할 수좌들에게 모든 방편이 곧 수행이라는 법어를 전했다.

이어 "금년 결제의 인연으로 일체무명이 소멸하고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기2567년 계묘년 하안거 결제일인 6월 3일부터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여 명의 수좌가 정진에 들어갔다. **신성민 기자**

〈종정예하 및 총림 방장 법어 9면〉

BBS불교방송 사장 후보 공모

오는 7월 21일까지

BBS불교방송 차기 사장 후보 공모가 시작됐다. B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방송(BBS) 제11대 사장 후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후보자 자격 요건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로서, 불교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불교방송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다. 진흥원은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을 사장 후보로 모시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7월 21일까지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불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서류 제출은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진흥원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진흥원 이사회에서 최종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재)불교방송 이사회에 복수 천거하게 된다. (02)719-2606

윤호섭 기자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
2023년 대행선연구원 제7회 학술대회
2023. 06. 17.(토)
09:30~17:30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
주최 대행선연구원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개회식
■ Section 1
사회 : 수경스님 (비구니승가연구소장)
제1발표
● 논제 :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
● 발표 : 혜달스님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 논평 :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제2발표
● 논제 :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
● 발표 : 여현스님 (동국대)
● 논평 :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제3발표
● 논제 : 김일엽 스님의 선 사상 고찰
● 발표 : 경완스님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 논평 : 주경스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 시상식
제5회 묘공학술상시상식
제5회 묘공학술장학증서수여식
■ Section 2
사회 :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제4발표
● 논제 : 비구니 은영스님의 생애와 보문종 창종의 의의
● 발표 :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 논평 :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책임교수)
제5발표
● 논제 : 가지산 석남사 인홍스님의 삶과 사상
● 발표 : 일중스님(동국대 강사)
● 논평 : 정운스님(전,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제6발표
● 논제 : 대행선(大行禪)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
● 발표 :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
● 논평 : 이상호 (서강대)
■ Section 3
토론광장
사회 :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 마무리말씀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www.daehaeng.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사전접수)도 가능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 합니다.
YouTube 한마음선원 으로 검색하세요.
● 참석문의 : 031)470-3276/3277(대행선연구원) ● E-mail : ds7788@hanmaum.org